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 영어는 이제 특정 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전세계 홈페이지의 78%가 영어로 되어 있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96%가 영어로 되어 있다. 영어는 21세기의 자동

good! ENGLISH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차와 전화 TV 등과 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단이 되었다. 한국불교계는 이미 영어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다. 21세기 인류정신문화의 대안인 선(禪)이라는 것이 세계사조에도 정작 한국 선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의 떡이며 껴지 못한 구슬처럼 그 출중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영어장벽에 있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불교성지들도 언어불통으로 인해 추가된 강동을 주지 못한 채 그냥 조형물만 바라보고 돌아가게 한다. 이같은 현실은 인터넷시대에도 또다시 답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관련 홈페이지에서 부족이나 영어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는 불과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다. 불교 홈페이지에 영어서비스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해외포교에 앞장섰던 국제포교사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나아가 각 종단 총무원이 중심이 되어 행정력으로도 산하단체 사찰 등의 홈페이지 제작시 영어의무화라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될 때 해외 네티즌들이 제대로 한국불교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자들이 자연스레 영어 불교용어를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다. 인터넷 시대, 스님을 비롯한 교계 지도층은 "어떻게 하면 불교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세계문명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nia.com)

## 62년이후 모든 징계자 대상 조계종 "대사면 추진"

### 총무원 '종헌 개정안' 중회 제출기로

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징계자 모두가 대상자에 포함되는 대사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총무원(위원장 정대)은 2월 29일 총무회를 열고 사면과 관련, 종헌 및 승려법 개정안, 통도사 총림 재지정 및 직영사찰(문수사 해남사 관동사) 해제 건의안을 중회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총무원이 마련한 종헌 개정안은 부칙 1개조를 추가해 사면 관련 조항 3개항을 신설한 것으로, △62년 이후 징계자 중 참회 자숙하는 자를 대상으로 △말변자의 사면을 제외 한 종헌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치 않으며 △말변자는 사면

후 공직취임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난 해 10월 제정 공포된 해종행위징계자특별법에 의해 형해진 징계의 경감 결정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무원은 이같은 종헌개정안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의 개념과 시행 절차를 구체화한 승려법 개정안, 통도사 총림 재지정 및 통도사 말사인 문수사 해남사 관동사 등 3개 사찰의 직영사찰 해제 건의안을 4

일 총회사무처에 접수했다.

총무원에서 종헌개정안을 제출하면 중앙총회는 법제본과위원회에 외부에 심의토록 하며, 특히 심의를 거쳐 종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종헌은 총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종회는 14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종헌개정안 마련은 사면을 통해 종단통합을 이루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며 "종헌 개정 이후 별도로 구성되는 사면위원회 또는 호법부에서 사면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은겨레손잡기운동에 동참한 정대스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봉 목사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이 손을 맞잡고 화해와 평화를 기원했다.

### 은겨레 손잡기 "화해-평화 기원"

#### 종교인 333인 "통일과 나눔의 새세상" 선언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교의 종교인들과 시민 학생 등은 1일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수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은겨레손잡기운동본부(상임공동본부장 정대 종단협의회장) 주최로 열린 손잡기 운동에 참석해 손을 잡는 인간미를 만들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열린 중앙행사에는 각 종교

대표 등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전공연에 이어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의 경과보고, 정대스님의 인사말, 박지인 문화관광부 장관 축사, 김대중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대독(최창규 성균관장), 김수환 추기경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 낭독, 김광옥 천도교 교령의 '화해와 평화의 날'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내

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와 화해의 악수를 청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야 평화의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천명했다. 종교인 333인은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통해 "독립과 자주를 선언했던 3·1정신을 계승해 화합과 평화, 나눔의 새세상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산 전주 창주 등에서도 지역별 행사와 함께 인간미하기를 열었다. 손잡기운동본부는 이날 행사에 17천여명이 참가해 1백40여km 구간에서 인간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 종단협 상임이사 체제로

####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종단참여 확대"

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총무원(위원장) 운영이 회장단 중심에서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종단협의회는 3일 서울 부암동 하림각에서 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6명으로 되어있는 상임이사를 11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날 총회에서는 정대,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은어 천태종 총무원장, 상초 진각종 총무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등 5명의 상임이사 5명 외에 새 상임이사 6명과 3명의 감사선임을 회장단에 위임했다. 종단협의회는 정관 개정 및 새 임원의 승인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종단협의회가 상시 의사결정 구조를 일종의 집단지도체제인 상임이사 체제로 바꿈에 따라 종단총회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종단에서는 종단협의회 운영이 몇 개 종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해 왔다. 종단협의회는 또 개정 정관에 △회비 6개월 이상 미납 종

단에 대한 징계 조항을 신설하고 △사무총장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토록 했다. 정성운 기자

#### 대각종등 3개종단

#### 종단협 가입 보류

종단협의회 신규가입종단 심의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신규가입 심사기준을 정하고 가입신청한 대각종 불이종 정토종 등 3개 종단의 가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사기준을 △총본산이 명확하고 사찰 수 50개 이상 △창종 후 3년이 경과한 종단 △기존 회원 종단과의 불화가 없을 것 △총본산대표(종정, 총무원장)의 전종이적(轉宗移籍)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입회 불가 등 7개항으로 확정했다. 심의위원장 홍파스님은 3일 총회 보고를 통해 "정토종은 창종 후 3년 미경과, 태고종과의 사찰 문제 미해결, 불이종은 창종 후 3년 미경과, 대각종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이번 총회에 가입 동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 현대불교 지사 모집합니다

법보종교의 주역! 현대불교신문이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불교언론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현대불교는 생활 불교의 지혜와 고급 정보를 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는 전국 광역시와 도 단위로 지사·지국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조직망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의 독자화와 광고영업의 사업 활동권을 갖게 되어, 법보와 포교사로 좋은 인연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각 지역의 체계적인 구축과 광고수주를 위해 시·도 단위로 전국 지사를 개설하고, 늘 정진하는 자세로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참신하고 역량이 있는 지사장을 모집합니다.

1. 대상지역: 인천·경기·대전·충청·대구·경북·전남·전북·울산·경남·경원도
2. 지사의 사업활동 내용: 해당지역 내 독점 구축확장 및 광고수주, 본사 주회 수인 사업활동 수행, 지역 내 취재활동 지원 및 기사 확보
3. 구비서류 및 제출기한: 구비서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제출기한: 2000년 3월 17일, 제출방법: 우편(17일 도착분 유료) 또는 직접 방문 접수
4. 채용처: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교재부 문의전화: 02)737-0090, 02)737-8881, 팩스: 02)737-0697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8003478번

## 연꽃원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사찰 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모주름등 (핑크)

찬덕의 연일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일등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가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일등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일 ■ 등통 + 비단 연일

공단(비단) 연일등 완성과정

비단연일 → 등통 → 완성연일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디자인 : 대구 여래기획  
 전화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할장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